

지역 소식

온라인 청년 독신 활동을 통해 단합하고 소속감을 느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단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진정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 엠 러셀 벨라드 회장, 2021년 4월 연차대회)



온라인 청년 모임 포스터 및 실제 모임 장면들

지난 4월 연차대회에서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단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했다.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전국 각 스테이크 및 지방부의 청년 독신들은 중단되었던 활동 모임을 재개하고자 온라인 공간으로 모였다. 청년 독신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온라인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마련했고, 온라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벨라드 회장이 강조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속감’을 느끼며 강화되고 있다. 국내 몇몇 스테이크 및 지방부에서 열린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모임을 살펴본다.

물리적으로 멀어져도 마음은 멀어지지 않도록

부산 스테이크의 청년 독신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만난다. 평균 15~20명의 청년 독신들이 ‘청년 독신 주례 온라인 활동 모임’을 위해 줌에 접속하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 보고 있다”고 한다.

부산 스테이크 독신 위원회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줌으로 모여 청년 독신들의 복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계획한다. 이들은 청년 독신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두 가지에 집중한다. “저희는 모임에 참석한 모두가 말을 할 수 있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랜만에 활동에 참석한 청년 독신이 있으면, 반갑게 인사하고, 근황을 물어보고, 활동 중에 소외되지 않도록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주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다음 주 모임에 다시 참석하고 싶어집니다. 청년 독신들이 서로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작은 친절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와서 나를 따르라’ 퀴즈 대회, 익명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하여 서로 칭찬하기 활동, 자신의 방에 있는 물건으로 빙고 게임하기, 요리 콘테스트 등 단순하지만 모두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재미와 우정 증진 위주의 활동 외에도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긴 물건이나 사진을 소개하고 패밀리서치에 올리거나, 교회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기 등 구원 및 승영 사업에 독신들이 일조할 수 있는 활동도 진행했다.

청년 지도자인 구포 지부의 김윤정 자매는 주례 온라인 활동 모임을 통해 청년 독신들이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한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만, 온라인으로 매주 만나면서 교회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면으로 만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고,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강릉 지방부는 지난 연말,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여, ‘신입 청년 독신 환영 모임’을 가졌다. 또한 지난 3월 27일에는 ‘강릉지방부 독신 퀴즈의 밤’에 강릉 지방부 내 청년 독신 및 타 지역 청년 독신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주제로 퀴즈를 푸는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우정을 다졌다.

사실 강릉 지방부의 청년 독신 성인들은 강릉, 원주, 태백, 속초, 동해 등 넓은 지역에 걸쳐 다양한 곳에 거주하고 있기에, 대면 모임을 할 때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강릉 지방부 청년 지도자인 강릉 지부의 임준호 형제는 이렇게 전한다. “지금까지 온라인 활동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zoom을 활용하여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고, 대면 모임처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먼 곳에 살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더 편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된 이후에도 이런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연결되는 서로의 삶

서울 남 스테이크 독신 그룹은 여섯 개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성격의 비대면 활동으로, 계속해서 서로의 삶을 연결하고 있다. 지난 3월, 독신 그룹의 자립 위원회는 ‘실전 투자 비법’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재테크 소그룹 활동을 한 달 동안 진행했다. 4월에는 활동 위원회가 ‘소그룹 봄 활동 지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4인 이하의 청년 독신들이 모여 우정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봉사 위원회는 매주 청년 독신들의 봉사 경험담이 담긴 ‘봉사 레터’를 발송하고 청년 독신들이 봉사의 기회를 찾도록 독려했다. 홍보 및 영적 강화 위원회는 매달 ‘몰몬경 읽기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써, 함께 경전을 읽고 의견과 간증을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이렇게 독신 그룹 회원들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30일에는 독신 그룹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단합 대회를 가졌다. 모임에 참여한 자매들은 자신을 소개한 뒤, 여러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며 우정을 쌓았다. 독신 그룹 상호부조회 회장 김봄 자매는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복음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가 회장단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한다. “독신 그룹 특성상 전입, 전출이 잦은데 현 상황에서 새로운 회원이 와도 친해질 자리가 많이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서는 서로 친해지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담 없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이번 온라인 활동을 계획했고, 앞으로도 자매님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지지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지난 1월 30일~31일에는 서울 동 스테이크 청년 독신 MT 모임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자주 함께 모여 영혼의 복리를

구함’(모로나이서 6:5)이라는 주제 아래 50여 명 이상의 청년 독신들이 참여했다. 토요일에는 신입생 환영회, 종교교육원 소개, 조별 대항 게임 활동 등이, 일요일에는 합동 성찬식과 ‘와서 나를 따르라’ 주일학교가 진행되었다. 동 스테이크 독신 대표 이인성 형제는 이렇게 전한다. “작년은 코로나19로 활발했던 독신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정말 아쉬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청년 독신들이 그동안의 아쉬웠던 마음을 달래고, 여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경인 지역 연합 청년 독신 위원회

한편 작년 4월, ‘서울, 경인 지역 연합 청년 독신 위원회’가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승인하에 구성되었다. 위원장이자 지역 칠십인인 권영준 장로의 지도에 따라 네 개 스테이크(서울, 서울 남, 서울 동, 서울 서 스테이크)의 독신 대표가 모여 분기별로 회의를 거쳐, 연합 온라인 성찬식, 함께 건전한 습관을 기르는 ‘챌린저스’ 활동, 온라인 데이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위원회가 공들여 준비한 ‘온라인 블라인드 데이트’ 활동은 청년 독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활동은 청년 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면 모임이 중단된 상황에서 데이트를 할 상대를 찾기 어려운 청년 독신들에게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70여 명의 참가자는 zoom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두 명의 상대를 만나 20분씩 대화를 나눴으며, 양측이 원할 경우 전화번호가 공개되었다. 지금까지 2회 진행된 블라인드 데이트 프로그램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 위원회 대표로 봉사 중인 서울 남 스테이크 독신 그룹 소속 최원철 형제는 청년 독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강조했다. “비록 예전처럼 직접 만나 활동할 기회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 독신들이 이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다 같이 이 길을 걷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지지해주는 많은 분이 곁에 있다는 사실과 무엇보다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으며,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니파이전서 21:16)” ■

연합 독신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는 SNS 인스타그램 'ysa_seoul_gyeonggi' 계정을 참고한다.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변화를 선택함

꿈에서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물로 인도하셨다.

서울 동 스테이크 박정은 자매

중,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다녔던 나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가르침에 익숙했다. 더불어 대학은 불교 재단의 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불교의 가르침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이런 환경 덕에 '종교'라는 것은 젊은 시절 나의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다양한 종교 집회소를 방문하여 교리 공부를 하곤 했고, 누군가로부터 '물문교(비회원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이르는 별명)'에 대해 듣고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적도 있었다. 10년 전쯤, 고모의 권유로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신실한 신앙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지난 해 10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10년간 다닌 성당에 몇 달째 나가지 못했다. 문득, 특별한 이유없이 '물문교'가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인터넷에서 교회를 검색하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웹 사이트에 접속했다. 교회 웹 사이트에는 선교사에게 연락처를 남길 수 있는 링크가 있었고 그곳에 연락처와 주소를 남겼다. 곧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서울 동대문에 있는 집회소에 방문하게 되었다.

교회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를 환영해 준 선교사님들에게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사전에 교회의 역사 및 교리와 관련된 궁금한 점 약 열 가지를 준비했고, 이에 대해 선교사님들에게 하나씩 질문하기 시작했다.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신권과 관련된 의문점, 선지자라고 하는 조셉 스미스라는 인물 등에 관한 질문이었다. 그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곧 선교사님들과 몇 달 간의 복음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신중하게 교회의 교리를 계속해서 공부했고 물문경은 물론, 교리와 성약도 읽었다. 경전의 내용은 쉽지 않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 내용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느꼈다. 특히, 교리와 성약의 가르침은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임에도, 마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처럼 와닿았다. 오랜 시간 여러 종교의 교리를 공부했지만, 선교사님들과 복음 토론을 할수록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 교회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다. 처음 집회소를 방문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모든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얻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가장 중요했다.

회복된 복음에 대한 확신에도, 아직은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는 10여 년간 지혜의 말씀과 관련된 습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오래된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는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혜의 말씀과 다른 계명을 기꺼이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했다. 그렇게 차일피일 침례 결심을 미루다 해가 바뀌고 2021년이 되었다.

3월 초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는데,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왔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강가처럼 보이는 곳에서 계셨다.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물로 인도하셨고 우리는 물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다. 마치 직접 어머니를 만난 듯, 생생한 꿈이었다. 잠에서 깬 후에 "엄마가 대리침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꿈을 계기로 나는 침례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고민 끝에 나는 침례를 계기로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변화를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으면 주님께서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었다. 나는 용기를 냈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3월 14일에 동대문 와드에서 마침내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은 후에 나의 일상은 달라졌다. 나는 매일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하고 세미나리 교재로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을 공부한다. 또한, 종교교육원 '처음 읽는 물문경' 과정을 수강하면서 경전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경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삶에서 성신의 인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따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명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낼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 나는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에 교리와 성약을 읽던 중, 20편 69절의 "경건한 행실과 말로써 ... 주 앞에서 거룩하게 걸으며"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침례 후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실과 말로써 거룩하게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이 구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끝까지 견뎌 마침내 주 앞에서 거룩하게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

한국 교회 역사 고문으로 새로 부름받은 김대연 형제

새로운 한국 교회 역사 고문으로 김대연 형제가 부름받았다.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는 교회 본부 역사부 산하 조직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기록을 수집, 보존, 공유하는 일을 한다.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는 한 명의 교회 역사 고문과 여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 역사 전문가로 봉사한 김대연 형제는 전임 고문이었던 정태걸 형제 다음으로 역사 고문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김대연 형제는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오랜 기간 부름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는 한국 교회 역사에 처음 호기심을 가졌던 때를 1982년, 대학교 1학년 학생 시절로 회상한다. “종교 교육원에서 교리와 성악 및 교회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 ‘내가 사는 교회’라는 제목의 과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한 페이지짜리 과제에는 선교부 조직 날짜, 스테이크 조직 날짜, 와드 조직 날짜, 역대 감독 및 지부 회장, 집회소의 역사 등을 기입하는 빈칸이 있었고, 저는 빈칸을 채우기 위해 교회 어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조사했습니다. 아직도 그 과제물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 형제는 2013년부터 한국 교회 역사 전문가로서, 전임 고문이었던 서희철 형제와 정태걸 형제와 함께 봉사하며 역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웠다. “서희철 형제님과 한국 교회 헌납 6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 배너를 만들고, 몇몇 스테이크 대회를 방문하여 전시회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6년에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미국에서 열린 한국 교회 헌납 60주년 기념 귀환 선교사 대회까지 자비로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초기 한국 교회 선교사분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지요.”

김 형제는 교회 역사 고문이라는 부름으로 부담감이 엄습하지만, “교회 역사 사업을 통해 ‘주께서...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회원들이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도울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교회 역사 지도서, 3페이지) 아울러, 성도들에게 교회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역사 수집에 적극적으로 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은 종교교육원 개설 50주년이고, 2023년은 한국 최초의 스테이크인 서울 스테이크 조직 50주년입니다. 여기에 맞춰 역사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역사적인 1975년 한국 대회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75년과 1980년의 지역 대회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자료와 증언이 필수입니다. 많은 개척자분께서 기억을 가다듬고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의 입에서 개척자들의 신앙 이야기가 자주 인용되고 또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1963년 경기도 송탄에서 출생한 김대연 형제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80년 10월 26일에 침례를 받고 서울 스테이크와 동대문 스테이크, 청주 스테이크에서 신앙생활을 해 왔다. 1989~1990년에 대전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청소년 고문, 와드 및 스테이크 집행 서기, 지부 회장, 대체사 그룹 지도자, 감독단 보좌,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회장단, 선교부 회장단 등으로 봉사했다. 서강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으며, 진공 기술, 반도체 장비 관련 엔지니어로 영국, 프랑스, 독일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30년간 몸담았다. 한국산업기술협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삼성전자를 비롯해 여러 기업과 학교, 기관에서 진공 기술 강사로 강단에 섰으며, 업계 저널에 기고 활동을 해왔다. 이윤화 자매와 1992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는 8월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선지자님께서 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교 사업을 나가는 데 문제가 되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부산 선교부 김민제 장로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강릉 지방부

지방부 회장: 송병철 형제(전임: 신기현 형제)
제1보좌: 구분철 형제
제2보좌: 김재경 형제

대전 스테이크

스테이크 회장: 정양수 형제(전임: 김응조 형제)
제1보좌: 이우영 형제
제2보좌: 이기영 형제

더 많은 지역 소식 기사와 사진을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fb.com/churchofjesuschristkor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본부): 02-2232-1441(전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카카오톡 채널 검색)
- 배부 센터: 080-238-8000